

PHOTO ESSAY

사진산책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이호준 Lee, Ho-Joon |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덟 차례의 개인전과 아홉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본문: 이호준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의 에세이를 읽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와 몇 번을 반복해 읽고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를 했다. “책을 읽고 쓴다는 것은,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든다.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일상 속에 파묻혀 일상인의 눈으로 세계를 보지 않게 되었음을 뜻

한다.” 내가 평소 사진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히 옮겨놓은 듯했다.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는 일, 무심히 지나치던 장면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하는 일. 사진을 찍는 행위와 글을 읽고 쓰는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예술은 장르를 뛰어넘어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게 아닐까.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 말이다. 그렇기에 예술가는 자기 장르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 사진과 문학만 해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지 않은가. 문학은 사진에 사유의 깊이를 더해주고, 사진은 문학이 말하려는 것을 한 컷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 사진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시선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타고난 재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웃한 예술 장르와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촬영길에 나서며 카메라 옆에 책도 함께 쏜다. 좋은 문장을 만난 날은 사진도 잘 찍히는 느낌이 든다.